

■ 수능 5년 연속 전국 1위 숨은 주역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실력 광주 우리가 책임져요”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사실 대입 기관에 적게는 5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주고 진학 컨설팅을 받게 한국 입시의 현실입니다. 결국 ‘공교육’에서 할 일을 사설기관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죠. 광주에서만 큰 이리란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뭉친 이유입니다”

지난 25일 찾은 송덕고 진학지도실에서 광주 진학부장협의회 소속 교사 7명이 모여 향후 대입 방향 등을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광주지역 인문계 고교 47개 진학부장의 모임인 진학부장협의회 소속으로, 올해 광주만의 대입 공략법을 짜기 위해 선발된 ‘최정예 교사’들이다.

올 수능 이후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이들이 광주지역 수험생들의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대입 원점수 배치표’ 때문이다. 전국에서 현직 교사들이 수능 이후 배치표를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수능이 끝나자마자 배치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지역 고 3생들의 지난 6.9월 모의평가 점수와 전년도 수능 점수, 올해 수능 가채점 점수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광주만의 대입 배치표’를 완성했다.

사실 입시 전문 업체들과의 시간 싸움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사흘 밤낮을 합숙까지 했다.

한철민 송덕고 진학부장은 이번 배치표 작성 과정에서 비장의 무기인 2009학년도 서울대 합격·불합격자 점수표를 내놨다.

한 교사는 전국에서 유일한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 지난 1년간 전국 고교를 돌며 서울대 지원자들의 점수를 파악했다. 또 다른 교사는 서



광주지역 인문계 고교 47개 진학부장의 모임인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소속 태스크포스팀이 송덕고 진학지도실에서 향후 대입 전략 등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고재필(43·설월여고), 박연중(52·송원고), 고경민(48·정광고), 한철민(48·송덕고), 장광재(40·송덕고), 박성근(47·송일고), 김광진(35·송덕고) 교사.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47개 인문고 진학부장 모여 자료 공유

전국 최초 ‘현직교사 대입 배치표’ 내놔

사설기관 독점 진학지도 공교육서 담당

울지역 대학과 학원가를 누비며, 수집한 대입 분석 자료들을 제출했다. 한철민 교사는 “1년동안 밤과 노력이 뻔 정보이지만, ‘실력광주’의 명성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자료를 공유했다”면서 “서울대의 합격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만큼, 언론이나 타 지역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이 발표한 배치표에는 수능 원점수 기준으로 서울 지역 주요 대학

과 전남대·광주교대 등 진학 가능 예상 점수가 상세히 기록됐다. 협의회는 이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광주지역 고 3 담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는데, 500석의 좌석이 꽉 차는 대성황을 이뤘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수능 전국 1위’의 대박을 낸 광주는 사설기관이 독점하는 타 지역과는 달리 학교와 교사가 대입 진학지도를 책임지고 있다.

광주진학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대입 배치표를 내놓기는 올해가 처음이지만, 지난 수년동안 내부적인 배치표는 매년 작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입시전략을 세워 전국에서 가장 높은 4년제 대학 진학률이라는 실적도 냈다.

이들이 뚝뚝 뭉치는 데는 어려움도 많았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 학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학교 줄세우기’ 등으로 악용될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공감대가 이들을 단합하게 만들었다.

진학부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연중 교사(송원고)는 “사실 입시 전문업체에 의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올해 우리(진학협의회)가 내놓은 배치표는 가공되지 않은 교육 현장의 살아있는 데이터로, 사실 입시 업체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구, 부산, 제주도 등 전국 고교에서 배치표를 보내줄 수 없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성근 송일고 진학부장은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국에서 배치표를 보내달라는 학부모들의 부탁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제주도에 사는 한 학부모는 아들의 수능 점수를 불러주면서 합격가능 대학을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앞으로 매년 원점수 배치표를 내놓고, 수능 성적 발표되면 표준점수 등을 바탕으로 한 ‘지원가능 대학 분석표’도 만들어 낼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배추값 폭락... 우울한 농심

27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해남군 산이면 배추밭에서 농민들이 김장을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올해 유례없는 폭작으로 배추값이 폭락한 때문인지 농민들의 표정에 수심이 가득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철도 파업... 화물열차 운행 차질

광주·전남 62회 → 4회 그쳐 화순탄광 등 물류 ‘스톱’

전국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27일 광주·전남에서 KTX 등 여객열차는 정상운행되고 있지만 화물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 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전남 지역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광주와 전라남도 각각 2회씩 4회에 그치고 있다. 평소 광주와 전남지역 화물열차 운행 횟수 62회에 비교하면 3.5%에 불과

한 수준이다.

이처럼 화물열차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물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석탄 2천여t을 철도를 통해 전북으로 운송해야 하지만 파업의 여파로 보내지 못하고 있으며, 프로필렌 등 520여t을 열차로 운송하는 나주화학공장 등 다른 업체들도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는 모두 정상운행되고 있다. 광주본부는 87회, 전남본부는 52회 여객열차를 운행 중이다.

한편, 광주본부는 여객열차 정상운행을 위해 평시 인력(1천68명)의 40.2%인 426명을 필수 근무자로, 53명을 지원인력으로, 전남본부는 123명을 필수 근무자, 25명을 지원인력으로 각각 지정해 현장에 투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두바이 쇼크’ 코스피 75P 급락

환율 20원 이상 급등... 금융시장 ‘패닉’

두바이발(發) 쇼크에 주가가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패닉’ 장세가 나타났다. 코스피지수는 연중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75.02포인트(4.69%) 내린 1,524.50에 마감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 6일의 89.28포인트 이후로 최대 하락

폭이다. 하락률은 지난 1월 15일 -6.03% 이후로 가장 크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현물시장에서 2천억원, 선물에서 1조4천억원 등 총 1조6천억원가량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도 22.15포인트(4.67%) 급락하면서 451.67로 주저앉았다.

원·달러 환율도 20원 이상 급등했

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1,155.30원)보다 20.20원 급등한 1,17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170원대로 마감한 것은 이달 5일(1,179.80원) 이후 처음이다.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을 조래한 원인인 지난 25일 두바이 국영회사인 두바이월드 채무상환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전세계적으로 투자심리가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의 두바이 채권이 미미한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영산강살리기는 다음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영산강은 조국역사의 보물창고입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건강한 강을 물려주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 최태원, 서민, 광주·전남지역민들께 보내는 메시지